2. 미국 독립혁명과 미국 문학

1) 미국의 독립혁명

1620년 메이플라워 이주자들의 플리머스 정착으로부터 본격화된 영국의 미국 식민지 역사는 이후 급격히 팽창해서 1730년대 무렵에는 무려 13개의 식민지역을 북아메리카 대륙의 대서양 연안에 건설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부터 독일계, 아일랜드계 등 다양한 국적의 유럽인들이 미국 땅에 몰려들어왔다. 미국 식민지에 정착하는 사람들의 국적구성이 다양해지면서 미국 식민지의 영국에 대한 정서적 종속성은 점점 약화되게 되었다.

18세기 중반부터 미국 식민지 거주자들은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 졌다. 영국은 18세기 중엽까지 전세계에 걸쳐 식민지를 확장하느라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다. 더구나 프랜치-인디언 전쟁(French-Indian War, 1754-1763)으로 프랑스를 북아메리카 지역으로부터 사실상 축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영국도 상당한 군사적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영국의회는 미국 식민지에 세금을 증수할 것을 결정했다. 영국국회의 세금 증수 결정은 식민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반발도 즉각적이었다. 식민지역 곳곳에서 저항의 데모가 일었고, 세금을 낸 다면 미국 식민지 13개 주도 영국 국회의 의석과 발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도 팽배했다. 영국의회가 미국 식민지에 부과한 인지세와 타운센드법을 결의했고 이는 1773년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1774년 12개 미국 식민주의 대표 33명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미국 식민지역에 대한 영국의회의 입법권을 부정했고, 모든 영국 상품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모임을 1차 대륙회의라고 하며, 이 1차대륙회의의 결정사항은 미국의 사실상 독립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해 1775년 매사추세츠 콩코드에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가 충돌했고, 이 충돌은 미국독립전쟁의 시작을 의미했다. 1775년 5월에 미국 식민주는 2차대륙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회의에서 조지 워싱턴을 미국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1775년에 시작된 미국독립전쟁은 1783년 파리조약으로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2) 토마스 페인의 『상식』(Thomas Paine's *Common Sense*, 1775)

토마스 페인(1737-1809)은 영국에서 출생하여 30대 중반까지 영국에서 살았다. 영국에서 사는 동안 페인은 불만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 13세 때 중학교를 졸업한 후 더 이상의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타고난 명석함이 있었기에 독학으로 학교교육의 부족함을 메웠다. 한때 세무서에서 일했고, 그 후 사업을 했지만 신통치 못했다. 첫 번째 아내는 결혼하자 곧 죽었고, 두 번째 아내와도 헤어졌다.

페인의 영국에서의 우울하고 절망적인 삶은 그가 벤저민 프랭클린을 만난 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페인의 정의의식과 열정에 감명을 받은 프랭클린은 그가 미국에서 필요한 인재임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미국에서 일할 것을 권했다. 프랭클린의 추천서를 가지고 페인은 1774년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여 펜실베니아 메거진(Pennsylvania Magazine)에서 기자로 일했다. 페인의 정의와 인권에 대한 열정은 당시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사회적 문제를 그냥 넘겨보지 않았다. 그는 즉시 노예제를 비판한 『미국에서의 아프리카 노예제』(African Slavery in America, 1775)를 썼으며, 1775년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되자

미국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한 “상식”(Common Sense, 1776)이란 제명의 팜플렛을 출판하여 미국 전역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페인은 독립전쟁에 직접 참전했으며 참전 중에도 미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글을 계속 발표했다. 1776년 독립전쟁 초기의 불리한 전황에 처해 미국인들의 결심과 분발을 촉구한 “미국의 위기 제 1호”(The American Crisis, Number 1)는 당시 미국 군인들에게 필독서가 될 정도였다. 독립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난 후 페인은 프랑스로 건너가 프랑스 혁명에 참가했으며, 이후 미국에 돌아왔지만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는 페인은 기득권자들의 눈엔 곱게 보이지 않았다. 미국 독립에 대한 그의 헌신적인 공적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무관심 속에 불행한 삶을 마쳤다.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 실렸던 팜플렛[1)]

MANKIND being originally equals in the order of creation, the equality could only be destroyed by some subsequent circumstance: the distinctions of rich and poor may in a great measure be accounted for, and that without having recourse to the harsh ill-sounding names of oppression and avarice. Oppression is often the CONSEQUENCE, but seldom or never the MEANS of riches; and tho' avarice will preserve a man from being necessitously poor, it generally makes him too timorous to be wealthy. - "Of Monarchy and Hereditary Succession" in *Common Sense*

I have heard it asserted by some, that as America has flourished under her former connection with Great Britain, the same connection is necessary towards her future happiness, and will always have the same effect. Nothing can be more fallacious than this kind of argument. We may as well assert that because a child has thrived upon milk, that it is never to have meat, or that the first twenty years of our lives is to become a precedent for the next twenty. But even this is admitting more than is true; for I answer roundly that America would have flourished as much, and probably much more, had no European power taken any notice of her. The commerce by which she hath enriched herself are the necessaries of life, and will always have a market while eating is the custom of Europe.
- Thoughts on the Present State of American Affairs in *Common Sense*

1) http://teachnet.eu/tobrien/tag/thomas-paine/

3) 장 드 크레뵈쾨르의 『한 미국 농부의 편지』(Jean De Crevecoeur's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

장 드 크레뵈쾨르(1735-1813)는 프랑스에서 출생하여 1755년 북미대륙의 프랑스 식민지로 이민을 와서 북미 식민지에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졌던 프랜치-인디언 전쟁에서 프랑스군의 척후병으로 참전했다. 1759년 퀘벡이 함락되는 것으로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나자 그는 뉴욕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후에 그곳에서 결혼을 했다. 그는 뉴욕 주에서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지었으며 그때부터 미국이란 곳과 미국사회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미국독립전쟁이 시작되자 그는 프랑스로 돌아가기 위해 영국 점령지를 지나다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약 3개월간 투옥된 후 영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 1782년 장 드 크레뵈쾨르는 영국에서 그가 미국에 살면서 보고 느꼈던 것을 기록한 『한 미국 농부의 편지』(*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 1782)를 런던에서 출간했는데,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인기를 얻었는데, 이 책은 미국 작가가 쓴 책으로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은 책으로 기록되고 있다. 1783년 그는 프랑스로 돌아가 그곳에서 프랑스판 『한 미국 농부의 편지』를 출간했는데, 이 프랑스판 책은 그가 영국에서 처음 출판했던 것과 비해 많은 내용이 더 첨가되어서 총 세 권으로 출간되었다. 그의 영어판과 불어판 『한 미국 농부의 편지』는 다른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이 책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관심이 이전에 비해 대단히 높아졌다.

장 드 크레뵈쾨르가 『한 미국 농부의 편지』에서 묘사하고 있는 미국은 유럽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치유되는 신세계로 그려졌다. 유럽의 오랜 계급사회 전통에 비해 미국을 법치주의에 근거한 평등한 사회로 나타냈으며, 개인의 노력에 따라 누구든지 적절한 보상을 받은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묘사했다. 『한 미국 농부의 편지』는 당시 유럽 사회의 보수적 전통과 보이지 않는 계급제도에 의해 고통 받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국이 새로운 희망의 땅이라는 꿈을 주었다.

Jean De Crevecoeur[2)]

We have twice a year the pleasure of catching pigeons, whose numbers are sometimes so astonishing as to obscure the sun in their flight. Where is it that they hatch? for such multitudes must require an immense quantity of food. I fancy they breed toward the plains of Ohio, and those about lake Michigan, which abound in wild oats; though I have never killed any that had that grain in their craws. In one of them, last year, I found some undigested rice. Now the nearest rice fields from

2) http://fr.academic.ru/dic.nsf/frwiki/837351

where I live must be at least 560 miles; and either their digestion must be suspended while they are flying, or else they must fly with the celerity of the wind. We catch them with a net extended on the ground, to which they are allured by what we call TAME WILD PIGEONS, made blind, and fastened to a long string; his short flights, and his repeated calls, never fail to bring them down. The greatest number I ever catched was fourteen dozen, though much larger quantities have often been trapped. I have frequently seen them at the market so cheap, that for a penny you might have as many as you could carry away; and yet from the extreme cheapness you must not conclude, that they are but an ordinary food; on the contrary, I think they are excellent. Every farmer has a tame wild pigeon in a cage at his door all the year round, in order to be ready whenever the season comes for catching them. -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 Letter II - On The Situation, Feelings, and Pleasures, of an American Farmer

Europe contains hardly any other distinctions but lords and tenants; this fair country alone is settled by freeholders, the possessors of the soil they cultivate, members of the government they obey, and the framers of their own laws, by means of their representatives. This is a thought which you have taught me to cherish; our difference from Europe, far from diminishing, rather adds to our usefulness and consequence as men and subjects. Had our forefathers remained there, they would only have crowded it, and perhaps prolonged those convulsions which had shook it so long. Every industrious European who transports himself here, may be compared to a sprout growing at the foot of a great tree; it enjoys and draws but a little portion of sap; wrench it from the parent roots, transplant it, and it will become a tree bearing fruit also. Colonists are therefore entitled to the consideration due to the most useful subjects; a hundred families barely existing in some parts of Scotland, will here in six years, cause an annual exportation of 10,000 bushels of wheat: 100 bushels being but a common quantity for an industrious family to sell, if they cultivate good land. It is here then that the idle may be employed, the useless become useful, and the poor become rich; but by riches I do not mean gold and silver, we have but little of those metals; I mean a better sort of wealth, cleared lands, cattle, good houses, good clothes, and an increase of people to enjoy them. -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 Letter III - What Is An Americ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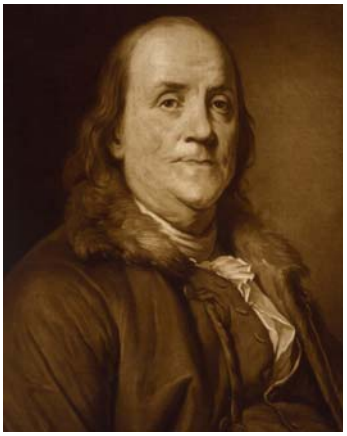
3)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Benjamin Franklin's *Autobiography*)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은 1706년 비누와 양초를 제조하는 집안의 15번째 아이로 보스턴에서 출생했다. 10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형의 인쇄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지만 타고난 성실함과 명석함을 가졌던 프랭클린은 인쇄소에 다양한 글들을 접하면서 지식과 글 쓰는 법을 독학했다. 형의

인쇄소를 나와 17살에 필라델피아로 가서 인쇄사업으로 성공을 하였다.

필라델피아에서 인쇄업에서 성공한 플랭클린은 『가난한 리처드의 연감』(*Poor Richards Almanac*, 1732)을 발간하여 작가로서의 명성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했는데, 1731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그는 정치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1736년에는 펜실베이니아의 하원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고, 체신장관 대리직을 맡아 우편행정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식민지 대표로 영국과 협상을 주도했으며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취한 인지조례의 철폐를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독립전쟁당시 참전을 망설이던 프랑스를 설득해 미국을 돕게 만듦으로써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헌법을 초안을 만드는데 참여했으며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정치가이자 과학자이자 문학가로서 활동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계몽주의자로서 유럽의 전통사회와 차별되는 실용주의 철학을 실천한 인물이었다. 그가 65세에 집필한 『자서전』(*Autobiography*)은 그의 실용주의적 정신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요구하는 성공을 위한 실용적인 덕목과 철학을 아주 쉽게 설명해내고 있다. 그는 건강, 성공, 행복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을 자서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인간의 가치와 성공은 타고난 출신이나 배경과는 상관이 없으며 오직 개인의 건전한 습관과 노력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인 지혜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통해 누구나 성공을 이룰 수 잇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 프랭클린 자신이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자서전』은 이후 미국적 가치와 "미국의 꿈"을 이룩하고자 하는 이들의 실천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Benjamin Franklin[3)]

In the various enumerations of the moral virtues I had met with in my reading, I found the catalogue more or less numerous, as different writers included more or fewer ideas under the same name. Temperance, for example, was by some confined to eating and drinking, while by others it was extended to mean the moderating every other pleasure, appetite, inclination, or passion, bodily or mental, even to our

3) Duplessis, Joseph-Siffrede의 작품. 1907. Prints and Photographs Division of the Library of Congress. http://www.americaslibrary.gov/aa/franklinb/aa_franklinb_subj_e.html

avarice and ambition. I propos'd to myself, for the sake of clearness, to use rather more names, with fewer ideas annex'd to each, than a few names with more ideas; and I included under thirteen names of virtues all that at that time occurr'd to me as necessary or desirable, and annexed to each a short precept, which fully express'd the extent I gave to its meaning.

These names of virtues, with their precepts, were

1. TEMPERANCE. Eat not to dullness; drink not to elevation.
2. SILENCE. Speak not but what may benefit others or yourself; avoid trifling conversation.
3. ORDER. Let all your things have their places; let each part of your business have its time.
4. RESOLUTION. Resolve to perform what you ought; perform without fail what you resolve.
5. FRUGALITY. Make no expense but to do good to others or yourself; i.e., waste nothing.
6. INDUSTRY. Lose no time; be always employ'd in something useful; cut off all unnecessary actions.
7. SINCERITY. Use no hurtful deceit; think innocently and justly, and, if you speak, speak accordingly.
8. JUSTICE. Wrong none by doing injuries, or omitting the benefits that are your duty.
9. MODERATION. Avoid extreams; forbear resenting injuries so much as you think they deserve.
10. CLEANLINESS. Tolerate no uncleanliness in body, cloaths, or habitation.
11. TRANQUILLITY. Be not disturbed at trifles, or at accidents common or unavoidable.
12. CHASTITY. Rarely use venery but for health or offspring, never to dulness, weakness, or the injury of your own or another's peace or reputation.
13. HUMILITY. Imitate Jesus and Socrates. - 『자서전』 중 -